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9월 28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43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그동안은 주님께

받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 김 혜 경 -

저는 안산시에서 살면서 결혼하여 딸 둘을 낳고 은혜와진리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충만한 성도님들처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나가서 힘껏 전도하는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존귀한 구역장 직분을 받고도 “저는 성경 지식이 너무 부족해요” “용기와 담대함이 부족해요” 하고 핑계를 대며 직분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권능으로 신령한 지식이 점점 쌓이며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단 사이비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12)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9~10)라고 한 말씀이 제 마음판에 굳게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제과점을 차려 운영하기 위해 집에서 멀지 않은 시흥시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준비하는 중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집을 팔고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제과점 대신 문구점을 차렸습니다. 시흥성전 교구에서 구역장이 이사를 왔다는 무척 반겨주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저는 직분만 구역장이어서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문구점 운영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종일 가게를 지키면서 겨우 주일예배와 구역예배에만 참석을 하였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갈수록 대출이자와 월세가 밀려 더 이상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웠습니다. 임대차 등 여러

가지 계약일이 많이 남아서 가게를 정리하는 것도 난제였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들을 결국 제가 다 해결해야 했기에 고민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구역장 세미나가 열리기 하루 전날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급성 충수염이라며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멀쩡하던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이런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몸이지만 네가 어떻게 할 수 없지?” “누가 수술을 하고 누가 치료를 해야 하지?” “의사 선생님요!” “그래, 의사에게 수술과 치료를 맡기듯 너의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모든 것을 다 네 힘과 네 지혜로만 하려고 하느냐?”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핑핑’ 울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집, 딸 은정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도와주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저의 온몸이 주님의 품 안에 꼭 안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편안하고 따뜻하고 안정이 되던지요. 놀랍게도 수술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더니 금세 집과 가게가 나갔습니다. 몸이 편치 않은 딸 은정도, 가까운 구역장님이 제가 퇴원하고 회복할 때까지 대신 잘 돌보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였더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었습니다.

빛은 많이 남았지만 당장의 문제들을 해결한 다음 전월세 집을 얻어서 다시 안산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교구장님과 성도님들이 저희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구장님의 추천으로 교회 만나실에서 교역자님들과 직원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교회 일을 하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딸이 학교에 다닐 수 있어서 감사했고, 쉬는 날에 병원에 다닐 수 있어서 감사했고, 편한 시간에 구역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으며 어렵지 않게 월세를 낼 수 있어서 더욱더 감사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여 저희 집에 모시고 시내 대학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말기이고 온몸에 전이가 되어 수술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또 한 번 그 자리에서 ‘핑핑’ 울었습니다. 여태 아버지 구원도 못 시키고 무엇을 했느냐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같아 더 눈물이 났습니다. ‘내일’ ‘다음에’ 하며 열심을 다하지 못한 잘못을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산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드린 후, 교구장님과 대교구장 목사님의 심방을 요청하였습니다.

두 분을 모시고 병원에 가기로 한 하루 전날에, 한 주간씩 저랑 번갈아 아버지를 간호하는 여동생이 전화하여 아버지의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4인실에서 1인실로 병실을 옮겼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시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온순한 태도로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게 될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기대대로 다음 날 아버지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앞에서 순한 양처럼 되어 말씀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결신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에서 예상한 날에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저에게 구령의 열정이 생겼습니다. 구역장 기도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 제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은 저의 일을 맡아주세요!”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길을 가다가 저만치 아는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저에게 그를 꼭 주께로 인도하라고, 불신자인 일가친척과 지인들을 힘써서 전도하도록 강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능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중한 일을 맡겨 주시고 생활이 안정되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배려에 감사드렸습니다. 이제 구역장다운 헌신과 봉사로 주님을 섬기며 열심히 전도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의 소원을 어렵게 만나실 실장님과 교구 전도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만나실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각 기관과 부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며 그 안에서 헌신 봉사하는 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그리고 풍성하게 체험하였습니다. 신앙과 여러 면에서 나약하고 부족한 저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크고 작은 도움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저에게 한없는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동안은 주께 받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주께 드리며 주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수구역장으로서 전심전력하여 사람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러한 저를 어여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구역공과 제3권 (3단원 : 구원의 하나님)

(제17과)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 본문 : 요한복음 10:27-29

• 요절 :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빌 1:6)

• 찬송 : 434장(새찬송가 384장), 470장(새찬송가 413장)

예수님을 영접한 지 오래 되지 않은 신자들 가운데는 더러 자신이 구원받은 데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오래된 신자 일지라도 구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입술로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실되게 신앙을 고백한 성도라면, 그러한 문제로 인해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의 강림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신자들을 은혜로 보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칭의를 결코 철회하지 않으시며, 사망에 이르는 죄 혹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 주십니다. 이로써 성도는 인간적인 약점으로 죄에 빠진 경우에도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며, 어떤 경우라도 완전히 타락하여 영원히 구원에서 이탈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얻은 구원의 견고함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1.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끝까지 보전해 주신다는 유력한 근거의 하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사랑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로써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부자관계(父子關係)요,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죄 많고 부족한 인간들도 아버지는 그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을 지며, 자녀는 아버지의 양육과 보호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지 않으실 리 없으며,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음 성구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변증(辨證)해 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롬 8:31~35).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견고함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신앙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알고 다정한 목소리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 인도해 내듯이, 예수님은 자기 피로써 구속하신 성도들을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요 10:27~29) 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실제로는 질병이나 죽음의 세력 앞에서 자신의 생명조차 부지하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또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성도들을 대적할지라도 결국은 불과 유황 못에 던짐 받을 존재일 따름입니다(계 20:10). 과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성도들을 빼앗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뿐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대언자와 변호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히 7:25).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만일 죄를 범할지라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서 변호해 주시므로 다시금 죄를 회개하고 믿음의 길에 바로 서게 됩니다(요일 2:1하). 이처럼 우리에게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으므로 영원토록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잃지 않게 된 것입니다.

3.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작별을 앞두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요 14:16)고 언약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 약속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응하였습니까(행 2:1~4).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마치 부모에게 위험한 칼이나 뱀을 달라고 졸라대는 어린 아이와 같이 때를 쓸 때가 많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면 오히려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구하거나, 무엇을 구해야 할 지 알지 못할 때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롬 8:26~28). 이와 같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므로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 없게 보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살전 5:23).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는 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성경적인 근거에 입각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갑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빌 1:6) 아멘!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굴1길 25 (삼동) T.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충남로41번길 30 T.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계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